



# “한가지는 심심해” 진화하는 여행예능

음악·화성 탐사 등 다양한 콘셉트 접목  
대표 여행예능 ‘꽃보다 할배’ 여전히 강세  
대리만족·여행정보 등 인기 ‘보증 수표’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갈릴레오: 깨어난 우주 ‘거기가 어디냐?’ ‘땡철이 어디냐?’ ‘꽃보다 할배’

방송계의 ‘스튜디오셀러’로 자리 잡은 여행 예능의 인기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과거 인기 있었던 여행 프로그램이 같은 포맷으로 돌아오거나 하면, 차별화를 위해 여행에 다른 요소를 추가한 프로그램까지 탄생했다.

아예 여행 대신 탐험을 주제로 잡고 극한의 상황을 간접 체험해보는 프로그램도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

◇고전의 매력... ‘꽃보다 할배’, ‘배틀트립’  
tvN의 대표 여행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가 최근 네 번째 시리즈로 3년 만에 돌아왔다.

여행 예능의 원조 격인 이 프로그램은 이순재, 신구, 박근형, 백일섭과 새로 합류한 김용건, 그리고 잠깐 이서진의 조합으로 첫 방송부터 9.2%(유료가구)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여행에서는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최근 한반도에 부는 평화의 바람과 함께 통일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까지 마련했다.

KBS 2TV ‘배틀트립’도 2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연예인이 2인 1조를 이뤄 여행을 설계하고 대결을 펼치는 이 프로그램은 가족여행, 친구와의 여행 등 시청자들이 여행을 할 때 도움이 될 실전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도 비중 있게 다뤄진다.

JTBC ‘몽쳐야 뜬다’와 tvN ‘짠내투어’는 시청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 형태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 ‘몽쳐야 뜬다’는 패키지여행, ‘짠내투어’는 10일 한 장

까지 아껴 써야 하는 배낭여행을 콘셉트로 한다.

◇여행+α... ‘이타카로 가는 길’, ‘땡철이 어디냐’, ‘선을 넘는 녀석들’  
여행에 특별한 콘셉트를 가미한 프로그램도 있다. 오는 15일 첫 방송 되는 tvN ‘이타카로 가는 길’은 대한민국의 대표 록커 윤도현과 하현우가 터키에서 출발해 그리스의 이타카 섬까지 가는 여정을 담았다.

이들은 오직 SNS에 올린 노래 영상 조회 수만으로 여행 경비를 얻는다. 이들은 방탄소년단의 ‘DNA’, 워너원의 ‘에너제틱’ 등을 커버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TV조선의 ‘땡철이 어디냐’는 게스트하우스를 소재로 삼은 여행 예능이다. 게스트하우스를 통해 현지인이나 다른 여행객들과 소통하면서 여러 명소와 맛집을 찾아낸다.

MBC TV ‘선을 넘는 녀석들’은 국경이 소재다. 국경을 접한 두 나라의 닮은 듯 다른 역사와 문화, 예술, 글로벌 이슈까지 다룬다. 특히 역사 강사 설민석의 설명이 곁들여져 정보 제공까지 톡톡히 하고 있다.

◇여행이 아니라 탐험... ‘거기가 어디냐?’, ‘갈릴레오’  
여행을 넘어 탐험을 떠나는 프로그램도 강세다. 2011년 시작해 8년째 금요일 예능 강자의 자리를 지켜온 SBS TV ‘정글의 법칙’에 이어 최근에는 사막을 횡단하는 KBS 2TV ‘거기가 어디냐?’까지 등장했다.



‘거기가 어디냐?’는 연예인 초보 탐험대원들이 극한의 탐험지에 도전해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의 위대함을 체험하는 내용이다. 출연자들이 사막에서 뜻밖의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보이는 모습은 예능보다는 다큐멘터리에 가깝다.

오는 15일 방송을 앞둔 tvN ‘갈릴레오: 깨어난 우주’는 아예 지구 밖을 탐험한다. 출연진은 화성과 똑같이 만들어진 미국 유타주 MDRS (화성탐사 연구기지)에서 일주일 동안 화성인으로서의 삶을 체험한다.

탐험 예능의 목적은 시청자들이 극한의 상황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갈릴레오’를 연출하는 이영준 PD는 최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최근 우주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우주이주, 화성 개척이다”며 “연예인들이 먼저 간접체험을 해봄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화성에 간다면 어떤 문제와 즐거움이 있을지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2년간 의미 있게 보내고 올게요”

장근석, 사회복지무원으로 입대

배우 장근석(31)이 지난 16일부터 사회복지무원으로 입대한다.

장근석 소속사 측은 “장근석이 16일 입대한다”며 “시간과 장소는 모두 비공개다”고 밝혔다.

앞서 소속사는 “장근석이 ‘양극성 장애’(조울증) 사유로 4급 병역 판정을 받았다”며 “입소 후 사회복지무원으로 2년 동안 대체복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에 따라 장근석은 기초군사훈련 대신 사회복지무연수센터에서 복무기본교육(소양교육)을 받은 뒤 배정받은 근무지에 근무 신고를 하게 된다.

그는 앞서 지난 6일 팬카페에 입대를 알리는 장문의 글을 남겼다.

장근석은 “언젠가는 나에게도 주어질 시간이었고 그저 담담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며 “남들보다 훨씬 늦은 나이에 가게 돼서 나도 당황스러웠지만, 지금부터 나에게 주어질 2년의 시간을 내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의미 있는 시간으로 쓰고 싶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어렸을 적 데뷔해 27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나만의 시간을 온전히 가져본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장근석은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기억해. 잠시 쉬어가는 거야. 다들 몸 건강히 지내고 아프지 말고. 사랑한다. 바람 피면 죽인다”고 남겼다. /연합뉴스



## 유재석, FNC엔터테인먼트와 쪽 간다

두터운 신뢰 바탕으로 재계약 체결

개그맨 유재석이 FNC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했다.

FNC는 16일 이러한 소식을 전하며 “성실한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유재석은 착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FNC의 비전을 공유해왔다”며 “그 동안 쌓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재계약의 바탕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든든한 동반자로서 그의 행보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재석은 약 5년간 소속사 없이 홀로 활동하다 2015년 7월 FNC와 전속 계약했다. 국내 최고 MC인로 이른바 불투침인 그의 전속 계약은 방송가는 물론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최근에는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유재석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됐다.

FNC에는 유재석을 주축으로 김용만, 송은이, 정형돈, 노홍철, 문세윤, 최성민, 이국주, 조우중, 문지애 등 예능인이 소속됐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여영차 바다야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제70주년 재현절 경축식 55 UHD 한식의 마음	40 지구촌 뉴스	50 검법남녀 (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비록 (재) 50 UHD 숨터 (재)	00 너도 인간이니?(재)		00 푸르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5 제보자들(재)	00 12 MBC 뉴스 20 기자! 낭만 고향(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쇼 55 특목 보험설계
1	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0 생로병사의 비밀(재)		10 알코르 UHD 특선 다큐 비대속 신비의 세계	55 닥터 365
2	45 와일드 코리아 플러스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0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제스트 20 푸르기 식사교실 50 드림 주니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10 저널리즘 토크쇼 J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프리파라 3 50 뽀뽀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0 비밀과 거짓말 (재)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1 대 100(재)	00 5 MBC 뉴스 2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0 생방송 빛날	00 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재)
7	00 KBS 뉴스 7 35 전라도 매력청	50 인형의 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고품지락
8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1 대 100	5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10	00 시사기획 창 55 UHD 숨터	00 너도 인간이니?	00 검법남녀	00 기름진 멜로
11	00 KBS 뉴스라인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투 제니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30 독립영화관 (금강한 단편들 2)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섹션 TV 연예통신 스페셜	30 나이트 라인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띠띠뽀 띠띠뽀(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톡!톡! 보니 하니1~5
06:00 한국기행(재)	12:10 행복한 교육세상	19:00 미니특공대 X
06:20 세계테마기행(재)	13:00 다큐 오늘	19:30 EBS 뉴스
07:00 강철소방대 파이아로보	13:1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19:50 극한직업 스페셜(재)
07:30 띠띠뽀 띠띠뽀	13:40 뽀치미(재)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맹 유치원1~2	14:30 미니특공대 x	〈산들의 섬, 바누아투 2부 생명의 땅 산토〉
08:30 몬카트	15:00 마샤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15 파프리카	〈대문 밖 비경 2부 하늘 지붕 아래 살아요〉
09:00 뽀뽀뽀 뽀로로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1:50 EBS 다큐프라임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45 강철소방대 파이아로보 1~2	〈아시아 원시부족 탐험〉
09:40 메디컬 다큐 - 7요일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쥬	22: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0:30 한국기행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23:55 뽀치미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백숙과 무생채〉	16:45 당동맹 유치원1~2	24:45 지식채널e
	17:15 마샤와 곰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p>36년생 손을 쓰면 곧 수습되리라. 48년생 상대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60년생 다양한 경로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72년생 망설이지 말고 속히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84년생 술은 필 때 걸러야 한다.</p> <p>행운의 숫자 : 57, 17</p>	<p>42년생 합리적으로 처리한다면 적폐가 해소되리라. 54년생 형세를 타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66년생 불굴의 투지로 최선을 다 한다면 목적지에 이를 것이다. 78년생 다각도로 여러 번 검토해 보라. 90년생 의도적인 술수가 보인다.</p> <p>행운의 숫자 : 49, 25</p>
<p>37년생 자업자득이요, 사필귀정이니 인과응보 하리라. 49년생 성사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될 것이니라. 61년생 파장에 남은 부스레기만 살피고 있는 형상이다. 73년생 지나간 것은 차치하고 앞으로 다가 올 일에 신경 쓰자. 85년생 절제하라.</p> <p>행운의 숫자 : 44, 85</p>	<p>43년생 머지않아서 운곽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55년생 진퇴를 분명히 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 67년생 관행을 중시하고 순리대로 처리하면 무난할 것이다. 79년생 여겨지기 두루 살펴보는 것이 안전하다. 91년생 적극적으로 실행하라.</p> <p>행운의 숫자 : 52, 72</p>
<p>38년생 보편적인 것이 무난하다. 50년생 사람을 쉽게 믿는다는 것과 미덕은 별개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62년생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는 법이다. 74년생 이루어지고 있다. 86년생 무의식중에 쉽게 속을 수도 있는 날이다.</p> <p>행운의 숫자 : 42, 30</p>	<p>44년생 폐해를 방지한다면 결단하게 된다. 56년생 노력에 상응하는 성숙한 열매가 맺는 면모이다. 68년생 속성은 그대로 남아 있음을 간파하지 말라. 80년생 지금은 때가 아니다. 92년생 정성을 다 했을 때 미련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p> <p>행운의 숫자 : 80, 92</p>
<p>39년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함이 나올 것이다. 51년생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지 말라. 63년생 중단수가 보이지만 머지않아 재개될 것이다. 75년생 잘 풀려 나가는 양상이니라. 87년생 하나의 이권 아래에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모여 들 것이다.</p> <p>행운의 숫자 : 90, 87</p>	<p>45년생 들기만 해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57년생 원칙대로 대처해야 흉사를 면한다. 69년생 상냥 될 일이 아니니 패배치 말고 처리하라. 81년생 알고 있었던 형태로 인식한다면 착오를 일으키기 충분하다. 93년생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지키는 것이 낫다.</p> <p>행운의 숫자 : 98, 89</p>
<p>40년생 주도면밀한 인식이 명쾌한 판단으로 이끌 것이다. 52년생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라. 64년생 이루는 것보다 유지해 나가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니라. 76년생 처음에는 난감할 것이나 점차 자리를 잡는다. 88년생 시작이 반이 될 것이다.</p> <p>행운의 숫자 : 25, 79</p>	<p>34년생 눈에 띄는 걸림돌부터 해결하고 불이다. 46년생 반갑반홍이로다. 58년생 부가 가치가 크다. 70년생 오래적인 절차를 무시한다면 부조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니라. 82년생 요동을 치더라도 별 것 아니니 내버려 두라.</p> <p>행운의 숫자 : 78, 52</p>
<p>41년생 가변성을 염두에 두라. 53년생 참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도다. 65년생 맹점을 보완하라. 77년생 시류에 따라 변하는 인심에 대해 크게 한숨을 쉬게 된다. 89년생 체면 차리다가 중요한 것을 실기할 수도 있느니라.</p> <p>행운의 숫자 : 14, 62</p>	<p>35년생 구태의연한 과정은 해소하는 것이 낫다. 47년생 한계를 일탈하지 않도록 하자. 59년생 참과 거짓을 헤아리기 힘들 것이니라. 71년생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낫다. 83년생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행운의 숫자 : 40, 75</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